

천태종 다문화가정 지원 나서

구인사·단양군, 단양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협약... 기업은행 광고비 2억 후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가 다문화 이웃돕기에 본격 나섰다.

단양 구인사주지 정산, 천태종 총무원장은 9월 23일 단양경찰서에 서 단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단양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전병용 단양경찰서장, 조옥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총무부장 무원 스님, 총무국장 갑수 스님, 김동성 단양군수, 박기륜 충북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산 스님은 협약식에 앞서 "모든 중생이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와 말 등 환경이 다르다 해도 다문화가정은 우리 곁의 이웃"이라며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병용 단양경찰서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며 "170여 다문화 가정



9월 23일 업무협약을 통해 다문화이웃지원에 본격 나선 천태종과 단양 지역기관. 왼쪽부터 전병용 경찰서장, 정산 스님, 조옥자 센터장.

이 거주하는 단양군은 협약식을 통해 구인사와 함께 힘을 모아 그 변화의 중심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구인사는 다문화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문화가정 생산농산물 등을 우선 구입하는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존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다문화 모자(母子)가정을 위한 '명랑빌리지'도 더욱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불교계에서는 이번 협약으로 인해 천태종의 문화·정서적 지원이 다문화가정 안전지원과 외국인 신변보호관리, 법률상담 등을 진행해 온 단양경찰서와 한글교실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지원에 나서고 있는 단양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기존 활동과 맞물려 유기적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천태종은 기업은행에서 9월

25일 광고비 2억 원을 후원 받았다.

천태종은 설법보전에서 정산 스님, 김규태 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600여 종단 간부진이 모인 가운데 전달식을 진행했다.

정산 스님은 전달식에서 "올해로 2년을 맞은 기업은행과의 인연을 이어 서로 협력해 좋은 관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규태 기업은행 부행장은 "천태종단과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다"며 "성공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종단 관계자와 신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천태종과 기업은행은 2008년 4월 천태자비카드 업무제휴를 맺은 이래 상호협력관계를 계속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전달받은 2억 원의 광고후원금은 2010년 천태종 탈력 55만부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02)873-3405

노덕현·이어나 기자

20년 한결같은 자비보시 실천

능인정사 법경 스님, 광진구 내 200세대에 쌀·비누 전달

20년 동안 꾸준히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 포대 화상 같은 자비의 손길을 펼친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광진구 능인정사 주지 법경 스님이 그 주인공.

스님은 9월 28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독거어르신 200세대에 각각 쌀과 비누세트를 전달했다.

행사는 능인정사 불자회인 나눔의봉사회 회원들이 심시일반 마련한 모금액으로 마련했다.

무량사 주지 금담 스님은 격려사에서 "법경 스님은 종교를 초월해 고통받는 사람을 구제하는데 힘을 쏟아왔다. 이번 분들의 공덕으로 포교가 되고 불법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종교편향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스님들이 정신적 지도자로서 위상을 갖고 중생구제에 힘을 쏟으면 자연히 종교간 다툼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경 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은 더욱 힘들고 외



정승학 광진구청장(왼쪽)과 법경 스님(왼쪽 두 번째)이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로운 날"이라며 "나눔의봉사회 회원들의 마음이 모여 전달품을 마련하게 됐다. 즐겁고 건강한 추석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학 광진구청장은 "시와 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 능인정사와 불교계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능인정사 외 불교계 관계자 여러분들에

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법경 스님은 1986년 포교당을 열었을 때부터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불우이웃들에게 매년 500포대(20kg)의 쌀을 나눠주고,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해왔다. 또 스님은 2005년 건국대병원이 새 병원을 개원한 이후 매년 1000만원의 병원비를 지원해오면서 병원법당 지도봉사를 맡아 환자들과 가족을 돕고 있다.

법경 스님은 사회봉사활동이 알려지면서 2004년 이명박 시장으로 부터 시민대상 봉사상, 광진구민 봉사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법경 스님을 비롯해 대허 스님(정봉사 주지), 정승학 광진구청장, 조길행 광진구의회 의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02)455-1080, 나눔의봉사회 후원계좌: 국민은행 776201-04-040560 (예금주: 나눔의 봉사회)

이어나 기자

내딛는 걸음마다 희망 영글어

생명나눔 제2회 희망걷기대회 열어

"맑은 하늘아래 숲길 걸으니 치료도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민)가 주최한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대회'가 9월 26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별자리광장에서 열렸다.

희망걷기대회는 '2009년 대중행진 안전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시키고, 모금활동 및 현물캠페인을 통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날 걷기대회에는 환우와 가족, 일반시민, 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월드컵공원 별자리 광장에서부터 난지순환길 6km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했다.

일민 스님은 대회사에서 "우리가 기증하는 장기·조직·각막 및 조혈모세포 기증은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큰 나눔이며 그 나눔은 어떤 나눔보다도 위대한 자비행이요 보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주최한 '희망걷기대회'에서 일민 스님(맨 오른쪽)과 환우 및 봉사자들이 함께 걷고 있다.

살행"이라며 장기기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걷기대회를 마치고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그룹 '해피체어'의 공연참가자들의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페이스페인팅, 아트풍선 등 다양한 이벤트와 조혈모세포기증등록캠페인에 참여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불암사(사회주 일민)에서 '제15회 시신 및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제'를 봉행했다. (02)734-8050

이어나 기자

복지사가 험한 세상 다리 돼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브랜드마케팅'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오)은 9월 25일 정책포럼 '사회복지 브랜드마케팅'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브랜드마케팅의 이론적인 개념과 병원, 상담기관, 지역단체, 공공기관 속에서의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양원석 소장(푸른복지사무소)은 '사회복지(사)의 포지셔닝과 복지 브랜드 전략과 홍보'라는 주제로 마케팅과 사회복지를 접목해 복지기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양 소장은 "사회복지사가 다른 직업인보다 무엇을 잘 하는

지에 대해 고찰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란 사회적 약자와 공식적 지지와의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청소년 내 꿈 찾기 의지나눔 쉼어울'이 26일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기생 입학식을 가졌다. 서울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쉼어울 프로그램의 2기 참가자들은 중학교 1~3학년 학생 81명과 동국대 108리더스 대학생 봉사자 16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5개월간 둘째, 넷째 토요일에 각계각층의 직업군봉사자와 만남을 갖게 된다. (02)723-5101

이어나 기자

바로잡습니다 751호 '불교상례지도서 모집' 기사에서 문의 전화번호를 (02)737-7277에서 (02)733-7277로 수정합니다.

한가위, 이웃이 가족이예요

꿈을이루는사람들, 구미서 열 번째 이주민추석큰잔치

국내 거주외국인 100만 명이 넘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주민들과 함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새겨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9월 27일 구미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제10회 이주민추석큰잔치'에는 진오 스님을 비롯해 윤정숙, 최윤희 경성북도 의회 의원 및 구미1대학 아동복지학과 봉사자들 150여 명이 참석했다.

진오 스님은 인사말에서 "추석은 조상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흠뻑 젖어 살던 가족이 모이는 한국의 큰 명절이다.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수 없지만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정숙 도의원은 "매년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추



꿈을이루는사람들이 9월 27일 주최한 '제10회 추석큰잔치'에서 이주민과 봉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석잔치를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김밥이, 민요공연, 스텝리랑가·인도네시아 밴드공연, 송편만들기, 한복입어보기 등 한국문화 체험과 각국의 음악과 춤을 즐기며 즐겁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건축현장에서 사고로

양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한 인도네시아 푸리아(26)씨 치료비와 남자아이를 출산한 네팔 예소다(34)씨에게 사랑의 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시간도 가졌다.

한편 순천향대 구미병원봉사단과 영제한의원 김경태 한의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진료봉사를, 외환은행 구미역지점은 송금은행 업무 봉사활동을 펼쳤다. (05)458-0755

이어나 기자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쳐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제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시록
- * 집안 동토귀신(東土鬼)알아내는 법
- * 자녀(子)애운(愛)착귀(着)정단(定)법
- * 취직(職)시험(試)·승진(升)시험(試)의 합격(合)판단(判)법
- * 선거(選)후보(後)당선(當)비율(率)하는 여부(여부)판단(判)법
- * 관청(官)·공무(公)원(源)빈자리(빈자리)입관(入)가능(可)여부(여부)
- * 소송(訴)·판계(判)사의 승패(勝)판단(判)법
- * 보고(報)싶은(思)사람(人), 기다리(待)는 사람(人) 소식(消息)가능(可)일
- * 가솔(家)자가 언제(時)쯤 집에 돌아올(來)까?
- * 잃어버린(失)분실물(物) 위치(位)추정(推)법
- * 도주(盜)·도망(逃)간(間)사람(人)이 어느(哪)쪽으로 갔(去)을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宗)원(源)귀(鬼)법
- * 12신궁에 암장(暗)된 악령(惡)귀신(鬼)
-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前生)투(投)시(時)법
- * 前生(前生)의 夫婦(夫婦)인연(因緣) 원(源)침(沈)살이 現生(現生)에 미치는(及)현상(現狀)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뽑은) 빙의(氷)착(着)귀신(鬼)신(神)
-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뽑은) 사후(死)後(後)환생(換)생(生) 귀신(鬼)착(着)해(害)론(論)
- * 산소(山)·무덤(墓)에 관(觀)해서 [음택(陰)법]
- * 무덤(墓)안 유골(骨)의 현재(現)상태(態) 알아(알)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입금
계좌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증

(02) 3667-4446
010-3813-4443